

지역 소식통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전북 유일 전 영역 A등급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승택)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3년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 5개 분야 전 영역에서 A 등급을 받았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 시설 중 전라북도에서 전 영역 A등급 선정기관은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유일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3년마다 진행되는 이번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 및 환경, 재정 조직 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시설 운영 전반으로 다섯 가지 영역에 걸쳐 진행됐다.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박승택 관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그동안 지역 주민 특히 지역의 장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한 김제시와 직원들의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설 성수식품 위생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위생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떡류, 부침 및 튀김류, 나물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일명 반찬가게, 방앗간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형유통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총 60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가공설 위생적 관리, △소비기한 경과 원료 및 제품 사용·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무등록(신고) 및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수용 식품을 수거하여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교육발전특구 공모 도전

완주형 모델 발굴 나서... 특구당 최대 100억원 지원

완주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도전한다.

15일 완주군은 군 발전전략과 연계한 돌봄, 초중고, 지역대학,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담은 완주형 모델 개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관내 초중고, 대학교 및 기업들과 공동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 기관 중장기 발전 계획 및 교육발전 특구의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 교육발전특구는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지방에서도 공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면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고, 특구당 3년간 30억~100억 원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교육발전특구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설계,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지원 등 완주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강점과 비전을 부각할 수 있는 완주형 교육모델을 개발해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신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작해 오는 2월 9일까지 진행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최보선 김제시 경제복지국장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제시, 19개 사업 추진상황 점검

최보선 경제복지국장,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최보선 김제시 경제복지국장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전북권 4대 도시로 준비하는 김제' 실현을 위한 분주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최 국장이 직접 각 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을 풀어나갈 해법을 모색하고, 정상 추진되는 사업들은 더 나은 성과를 이루기 위한 발전 방향을 강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김제상공

회의소 설립 추진위원회 방문을 시작으로 김제청년공간 E :DA(이다), 자유무역관티원, 김제지역자활센터, 김제가족센터, 장애인복지타운, 노인복지타운 등 지역의 경제와 복지 분야의 총 19개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경제와 복지는 지역을 이끌어가는 두 축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업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포용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원석 대표,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 500만원 쾌척

(중앙청과)

작년부터 올해까지 1000만원 기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5일 중앙청과 이원석 대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향사랑기부제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누적 기부금액 1천만원 기부자는 이 대표가 첫 번째다.

이 대표는 김제 관광진흥과 맞은 인연을 소중히 여겨 '공활 햇감자 축제'에도 참석하는 등 김제에 많은 애정을 쏟고 있다.

중앙청과는 지난 1989년 3월 9일 창립해 농산물가격 안정화와 농산물 유통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군장병 위문품 전달 등 사회적 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도매시장 법인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기부참여,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등 모두에게 이익이 보장되는 제도로, 2024년에도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가 좋은 성과를 거둘



15일 중앙청과 이원석 대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을 쾌척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전액(10만원)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2024년도 농업인 대학 입학생 모집

완주군이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18기 완주농업인대학 신입생을 2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모집과정 및 모집인원은 양념채소과 30명, 과수(핵과류)과 30명으로 총 60명이다.

지원 자격은 두 개 과정 모두 완주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며, 양념채소(양파, 마늘, 생강, 등)와 핵과류(복숭아, 자두, 살구 등)를 재배하

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입학원서는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교부받아 입학원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의 제반서류를 완주군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완주농업인대학은 3월부터 11월까지 각 과정별로 25회 100시간에 걸쳐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 현장견학, 농가포장현장실습 등의 다양한 교육 형태로 진행되며, 총 출석일수의 70% 이상

출석해야 수료가 가능하다.

최장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 전문성 강화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완주군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 했다.

입학전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290-3276)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완주농업인대학은 2007년 친환경농업을 시작으로 2023년 제18기까지 1,34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들은 지역농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신청접수

3톤미만 소형굴삭기 스키로우더·지게차 중 택1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영농작업에 활용도가 높은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오는 2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서 신청 받는다.

교육과정은 3톤미만 소형 건설기계(굴삭기, 스키로우더, 지게차)로 1인 1개 과정만 선택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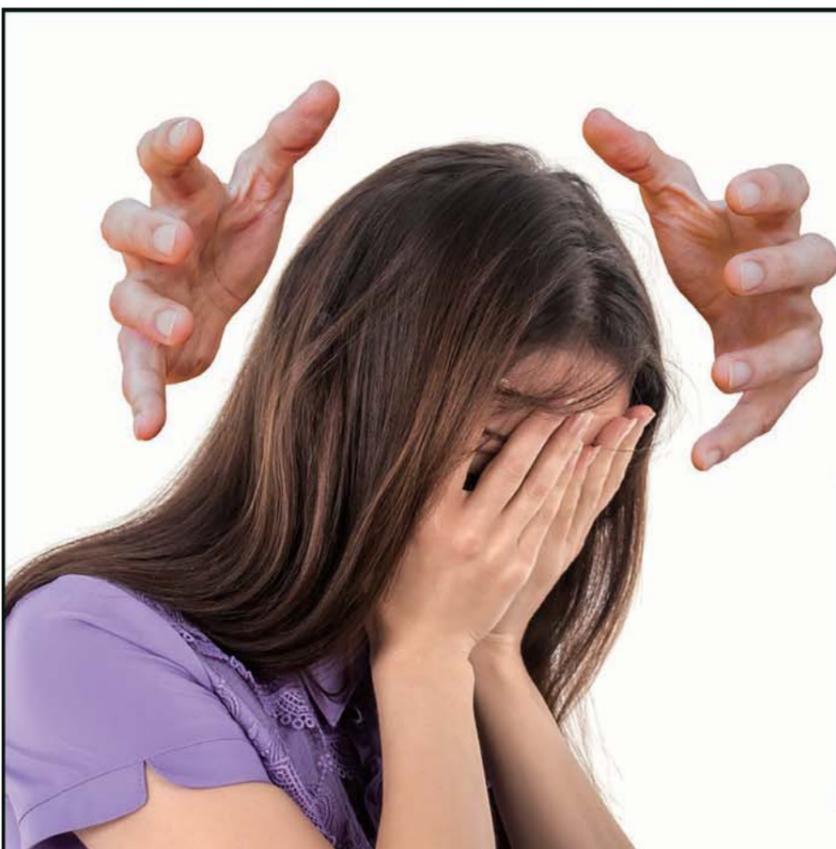
시는 소형 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올해 사업비 3,200만원(시비 50%, 자부담 50%)을 지원하며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이론 6시간과 실습 6시간 총 12시간 이수 후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교육 신청 자격은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제시 거주 농업인으로 만 18세 이상의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보유자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063-540-4511)에 문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업 현장에서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소형 건설기계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농기계 사고 없는 안전한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